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8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컬럼 :

'창조도시'에 대한 창의적 접근과 실천

인터뷰 :

박우섭 남구청장과의 대담



I/D/I/소/식



인발연 학술지 '인천연구' 논문 모집
우리 연구원 학술지 '인천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도...

행/사/정/보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행사]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

Zoom INcheon



연평, 너는 자유다

서해 5도의 모든 섬이
그렇듯이 연평도는 남
북보다 북한 땅에 더
가깝게...

도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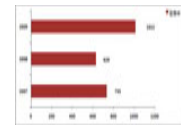
산타페(Santa Fe), 예
술의 특별한 중심지에
서 '유네스코' '창조도
시'로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
트워크에서 미국도시
중 첫 번째로 가입된
도시가 산...

IDI연구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
트워크의 이해와 육성
정책
창조도시(creative
city)의 개념 - 새로운
지역발전의 키워드...

인천지표



2009 인천 문화예술
교육 지표
교육기관별로 보면 크
게 지방문화원, 문화
회관, 청소년문화공
간, 주민자치...

‘창조도시’에 대한 창의적 접근과 실천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8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창조도시’에 대한 창의적 접근과 실천

성남문화재단 박승현 문화기획부장

■ 창조도시론의 핵 : 사람의 창조력

‘창조도시(Creative City)’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논의가 뜨겁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의 창조도시와 관련한 대부분의 논의들이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과의 연결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다. ‘산업’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만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던 산업사회의 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고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의 새로운 경영모델인 CoP(Community of Practice)를 연구해온 전수환 교수는 픽사(Pixar) 본사를 방문한 후 놀라운 기업의 창조적 원천을 소개한 바 있다. 요지는 기업 내부에 사내대학을 두어 청소부, 요리사, 경비원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술대학 수준의 100개가 넘는 예술 프로그램을 1인당 주 4시간씩 제공하고, 직원들끼리의 사내 동호회 클럽활동(CoP)을 적극 권장하면서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휘하도록 창조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픽사를 오늘의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으로 키운 애플사의 CEO 스티브 잡스 또한 첫 출발은 애플컴퓨터의 동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활동했던 ‘손수 만든 컴퓨터 클럽’이었다. 클럽활동을 통해 더욱 친해진 두 사람은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기로 의기투합하고 직접 조립에 나서 1976년 첫 번째 결과물을 만들어 냈는데, 그것이 바로 애플 I 이었다. 잡스는 이후 끊임없이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를 파고들면서 1984년 매킨토시를 선보인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잡스는 오히려 애플에서 쫓겨났다. 1985년 애플의 대주주들은 잡스의 독주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를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파란을 일으킨다. 그러나 늘 함께 끼를 발산하며 열정을 나누었던 멤버들에게는 그것이 거꾸로 새로운 기회였다. 잡스가 이끄는 멤버들은 넥스트스텝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세우고, 루카스필름의 3D 애니메이션 파트를 맡았던 픽사를 1986년에 인수하게 된다. 픽사는 이후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게 되고, 만성적인 적자를 내던 애플사는 1996년 넥스트스텝을 인수하면서 잡스를 다시 최고경영자로 스카우트한다. 1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애플사가 잡스의 복귀 후 단 1년 만에 4억달러 가까운 흑자를 만들어낸 사건은 바로 컴퓨터에 미친 ‘멤버들의 창조력’을 가감 없이 보여준 것이었다.

‘창조도시’ 프로젝트의 근본적 문제는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의 지적과 같이 “어떻게 사람과 조직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주요 도시들이 표방하는 ‘창조도시상(像)’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하며 자유로운, 그리고 창의력 풍부한 상상력과 새로운 사고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창의적 공론장(Creative Public Sphere)’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물리적/인식적 창의적 공간 또는 창의적 환경(Creative Milieu)에서의 문화를 통한 지역인식과 연대감 형성 및 공동체의 문화발전(Community Cultural Development)에 대한 비전과 목표 제시가 심각하게 우려할 수준으로 결여되어 있다. 랜드리가 제시하는 개념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시민의 창의성(Civic Creativity), 또는 공공선을 지향하는 창조력’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신의 교수도 국내에서의 창조도시 담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크게 우려한 바 있다.

결국 가장 심각한 지점은 창조도시를 만들어가는 ‘주체’의 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창조도시 만들기'에서 도시 리터러시(Urban Literacy: 도시를 '해독하는' 능력과 그 기능)을 지닌 시민 누구나가 참여하여 그 잠재력과 실행력을 실천하는 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소수의 엘리트 전문가 그룹(예술가, 도시계획자, 건축가, 사회학자 등)의 리더십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창의적 사고와 사회적 자기결정행동의 시민 참여가 배제된 창조도시 프로젝트는 현재의 도시문제와 미래의 도전과제들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능력을 무디게 할 뿐 만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창조도시와 관련한 논의는 근본적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깊이 있고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즉, '창조도시' 자체에 대한 '창의적 사고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 창조시민, 창조공간, 창조도시, 성남

성남시가 지향하는 창조도시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전제될 점은, 성남시의 창조도시상(像)이 랜드리의 창조도시 담론을 그대로 추종하거나, 교조적 이상향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창조도시에 대한 성남시의 인식과 추구 목표가 랜드리의 창조도시론과 많은 점에서 '우연적 필연'으로 일치하고 있을 뿐임을 밝히는 바이다.

창조도시와 관련한 기존 논의와 시각에 대한 비판과 성찰적 반성을 통해, 성남시가 지향하는 창조도시에는 도시 주체의 문제와 그 주체의 실천공간, 그리고 매개체로써 또는 자기실현으로써의 새로운 예술과 지역 커뮤니티 발전에 그 주요 초점을 두고 있다. '창조도시, 성남'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 그림을 참조하기 바란다.



'창조도시, 성남'의 상(像)은 '시민 스스로(주체)가 일상생활 기반인 동네(공간)에서 다양한 창조적 문화예술활동을 통해(문화자본)자아를 실현하고 상호 연대를 하고 이해함으로써(창의적 창작활동+ 선의의 사회적 자본) 공동체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의 형성과 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의 창조도시 논의와 비교하면 상당히 낯설다.

사실, 성남의 창조도시론은 '배제'와 '단절'이라는 성남시의 과거 뼈아픈 도시 역사와도 깊은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 성남시는 70년대 서울의 현대화 도시계획에 의해 강제 철거를 당해 집단 이주해온 서울의 도시빈민들이 '창조'한 도시이다. 이미 성남시민들은 첫 번째 '도시 창조'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다. 이후,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두 번째 '도시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첫 번째 동질한 집단이 공유한 경험과 달리, '신도심과 구도심'이라는 지역적 구분과 이질적 성질의 지역민 사이의 사회, 경제, 문화적 격차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 한국도시발전의 박물관'적인 성남시가 지향하는 창조도시에는 '배제'와 '단절'의 도시에서 '소통'과 '통합'의 도시로 거듭나야 할 당위적 목표를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성남시민의 세 번째 '도시 창조의 경험'은 바로 이러한 성남이라는 도시역사의 '시대적 현안'을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성남시의 창조도시상(像)이 다른 도시들의 창조도시상(像)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는 요인이다.

'창조도시, 성남'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상과 유리된 특별한 공간이 아닌(전문공연장 또는 전시장) 일상적 삶의 터전인 동네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 스스로가 조직하고 운영하는 문화예술동아리활동(사랑방문화클럽) 활성화에 매우 깊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동아리'를 통한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은 예술시장주의적 관점이나 노구주의적 관점의 예술이 아닌 새로운 예술, 즉, 예술과 삶, 창작과 감상, 예술가와 관객 사이의 엄격한 경계가 허물어지며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상호 연관되며 영향을 주고 받는 삶에 대한 총체적 접근으로써의 '예술'을 향유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창의적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은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문화자본 축적을 넘어 과정 속에서 동네라는 일상의 진부한 공간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공동체의 신뢰와 유대를 창출하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며, 동시에 이를 다시 새롭게 주체적으로 창조함으로써 살아 쉽고 변화하는 창조적 공동체 문화와 정체성을 발전시킨다. 바로 이 공동체 문화발전의 창조적 주체는 시민들 자신이다. 창조적 시민은 서로 '배제'하지 않고 '단절'되지 않으며 '경쟁'하지 않는다. 창조적 시민은 서로가 결속하고, 연결하는 창의적 연대를 형성한다. 이의구체적 실천이 성남문화재단의 주요 정책사업인,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문화통화 시스템 기반조성' 사업이다.



<그림>성남문화재단 5대 정책사업 개념도

‘창조도시(Creative City)’에 대한 국내외 관심과 논의가 뜨겁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의 창조도시와 관련한 대부분의 논의들이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과의 연결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다. ‘산업’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만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던 산업사회의 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고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의 새로운 경영모델인 CoP1)(Community of Practice)2)를 연구해온 전수환 교수는 픽사(Pixar) 본사를 방문한 후 놀라운 기업의 창조적 원천을 소개한 바 있다.3) 요지는 기업 내부에 사내대학을 두어 청소부, 요리사, 경비원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술대학 수준의 100개가 넘는 예술 프로그램을 1인당 주 4시간씩 제공하고, 직원들끼리의 사내 동호회 클럽활동(CoP)을 적극 권장하면서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휘하도록 창조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0년 8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창조적 지역육성과 남구의 비전

창조적 지역육성과 남구의 비전

- 박우섭 청장과의 대담

인천발전연구원 웹진 '아프리에' 49호에서는 전세계적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창조도시(creative city)'에 대해 기초단체장으로서의 이례적으로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등재를 공약으로 삼은 박우섭 남구청장을 만나 그 배경과 남구의 여건, 그리고 문화산업지구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신성희 박사(이하 신)

'창조도시(creative city)'는 점차 한국의 도시행정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화두이자 도시전략이 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공약으로 삼으신 것은 이례적이고 특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구를 유네스코 창조도시로 등재하시겠다는 공약을 내거신 배경에 대해 여쭙습니다.

▶ 박우섭 남구청장(이하 박)

창조도시에 대한 관심은 청장 재임 시절에 살펴보니 도시계획분야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하대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도시계획전공이 없어서 변병설 교수를 지도교수로 행정학을 통해 도시계획을 공부하던 과정에서 창조도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창조도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 워낙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 창조도시라는 것이 지향하는 좋은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구청장에 낙선하면서 일본 교토시에 있는 동지사대학 객원연구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본의 창조도시라는 오사카를 접하고,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관한 논문을 볼 기회가 생기면서 인천 남구도 유네스코 창조도시 미디어아트분야에 가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공약을 내걸게 되었습니다.

구청장 재임시절부터 기존의 공간, 시설 개념에 불과했던 청소년센터를 미디어로 특화, 청소년미디어문화센터라 짓고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민예총이 주축이 돼서 중앙정부에서 하던 사업인데, 인천은 남구가 유치하면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광역시 자치구가 유치한 특수한 경우의 선례를 남겼습니다. 유치 직전에는 CGV에 밀려난 주안의 맥나인이라는 극장 5개 상영관을 구입해 접하기 어려운 예술 영화, 독립 영화 상영을 하는 등 미디어아트분야도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3~4년 내에 유네스코 창조도시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뜻을 같이한 연수구 고남석 청장과 경제자유구역청, 우리 남구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동을 하면서 인천시가 나서주고 보탬이 되어준다면 실현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 신

미국의 플로리다 교수가 관용성, 포용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역이 갖는 개방성과 사람이 모이게 하는 포용성을 들자면 인천이 앞서가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지수가 높은 도시들의 위치를 분석해보니 대부분 항구도시들이 많았습니다. 인천이 바로 항구도시면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위치적인 이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도시 가입 요건의 핵심이 문화의 '산업화'의 가능성에 있습니다. 남구의 여건은 어떻습니까?



박 우 섭 남구청장

▶ 박

지난 4년간 방향성을 잃고 약간은 변질되기도 했지만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이 올해로 7화째를 맞이했습니다. 조금 더 화제가 될만한 행사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만 잠재성과 근거는 마련했다고 봅니다. 복합적이고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자원 확보에 대한 보다 많은 구상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기 4년 안에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만 되도 굉장한 일이자 인천이 업그레이드 되는 차원의 큰 보탬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인천이 경쟁력 있는 도시인만큼 인천발전연구원에서도 많은 아이디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신

또한 최근에 남구에 '문화산업진흥지구'가 지정되어있는데 이러한 지구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는 어떤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 박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실질적인 진흥이라고 하면 문화콘텐츠진흥센터가 건물을 구입해서 관련기업들이 입주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건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과 관련업체 입주로는 문화산업진흥지구로서의 의미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건물주나 상업(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몇 평 이상 건물의 1/10 정도는 문화산업이나 문화산업종사자에게 공간을 대여해주게 하는 대신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것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건물의 가치도 높아지고 전체적인 지역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

캐나다의 경우 실제로 문화를 위한 1%라 해서 문화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무상임대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보완해서 조려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겠습니까. 남구는 인천의 10개 군구가운데 가장 문화정책사업이 두드러지고 활발한 자치구로 보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이처럼 '문화'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연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박

개인적으로는 70년대 초, 대학시절에 연극반 활동을 했고, 연우무대라는 극단을 함께 창단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문화 운동을 하면서 '문화를 통해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이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지금도 행정의 최고 단계는 문화행정이고 문화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행정하는 사람 모두가 문화적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 나아가서는 주민들 모두가 문화의 향유자이면서 문화의 생산자이게 하는 것이 최고로 주민을 위하는 목표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동아리 등을 많이 만들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그런 과정을 통해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현실적인 장애나 반발도 많습니다. 영화관 구입 당시도 그랬고, 프로그램 운영구입 예산도 뒷받침이 안돼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문화계 종사자들도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협조적이어야 하는데 소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서로 발목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현실들을 볼 때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들처럼 문화운동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나 애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문제들도 승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내담 : 신성희(노사경쟁연구실 책임연구원)

■ 기록 : 장순지(시장연구협력센터)



인천발전연구원 웹진 '아뜨리에' 49호에서는 전 세계적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창조도시(creative city)'에 대해 기초단체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등재를 공약으로 삼은 박우섭 남구청장을 만나 그 배경과 남구의 여건, 그리고 문화산업지구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8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발전연구원 학술지 '인천연구' 논문 모집

인천발전연구원 학술지 제4호

인천연구

논문을 모집합니다 !

인천발전연구원 학술지 '인천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이론과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도시정책 관련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함으로써 인천지역 학술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천연구의 구성은 <기획논단>과 <지역연구>의 두부분으로 크게 구분되며 <기획논단>은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주제와 필진을 선정하여 집필의뢰가 이루어지며, <지역연구>는 자유투고 논문을 선별하여 게재하게 됩니다.

- 모집원고 종류
지역연구부문의 자유투고형식의 인천에 관련된 논문으로, 타학회에서 심사 중이거나 이미 기고된 논문은 다시 기고할 수 없습니다.
- 원고작성방법
원고는 필히 '인천연구'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편집규정참고
원고 제출 시 인천연구 투고신청서도 함께 작성해 보내야 정식접수가 됩니다.
- 원고분량
원고지 100장 이내
- 원고제출기간
2010년 8월 31일
- 원고제출처
우편접수 : 우) 404-190 인천시 서구 심곡로168 인천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
'인천연구' 담당자 앞
이메일접수 : sabine@idi.re.kr
- 문의사항
TEL : 032-260-2623

* 실제 게재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우리 연구원 학술지 '인천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이론과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도시정책연구자들의 최신 연구자료를 소개함으로써 인천지역 학술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발간되었다.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8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행사]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8.31):에너지경제연구원 031-420-2114

◆[행사] '프랑스 교통기본법 시행 현황 및 주요 이슈'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8.31):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행사] 'G20 정상회의 대비 세계일류 교통문화 정착방안' 세미나 개최(8.31):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행사] '국가교통DB 로드쇼' 개최(8.31~9.3):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행사] 「제14차 GIS국제세미나」 개최(9.1):국토연구원 031-380-0114

◆[행사]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9.1):한국여성정책연구원 02-3156-7000

◆[행사]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8.31):에너지경제연구원 031-420-2114◆[행사] '프랑스 교통기본법 시행 현황 및 주요 이슈'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8.31):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행사] 'G20 정상회의 대비 세계일류 교통문화 정착방안' 세미나 개최(8.31):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행사] '국가교통DB 로드쇼' 개최(8.31~9.3):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행사] 「제14차 GIS국제세미나」 개최(9.1):국토연구원 031-380-0114◆[행사]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9.1):한국여성정책연구원 02-3156-7000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0년 8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연평, 너는 자유다

굿모닝인천 유동현 편집장

연평, 너는 자유다



서해 5도의 모든 섬이 그렇듯이 연평도는 남녘보다 북한 땅에 더 가깝게 떠 있다. 웅진반도가 바로 눈앞이다. 인천에서 145km 떨어진 연평도는 북한 부포리와는 10km 거리다. 날씨 좋은 날에는 북한의 해주 시멘트공장의 연기까지 보인다고 한다. 멀어서 그만큼 그리움의 정서가 더 깊게 배어 있는 섬이다.

연평도(延坪島)라는 섬 이름은 마치 바다 위로 기차가 달리는 것 같은 평평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 바다 위에 평화롭게 떠있던 이 섬에 최근 긴장의 파도가 몰아쳤다. 이름하여 '연평해전'. 이 섬 앞바다에서 남측과 북측이 두 차례 연거푸 충돌하면서 순식간에 바다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격랑도 이 섬의 손 때 묻지 않은 아름다움을 결코 넘보지 못한다. 연평도의 산과 바다, 그리고 절벽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오히려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압권은 '빠빠용 절벽'이다. 이름 없던 이 절벽에 누군가 '빠빠용'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안목이 제법이다. 절벽으로 가기 위해 걸어가는 숲길도 그러려니와 절벽에서 내려다보는 발아래 풍경은 영화 바빠용의 스티브 맥퀸처럼 'free as wind'를 외치며 날고 싶게 만든다. 절벽 주변엔 어머니의 자궁 속처럼 깊고 푸른 계곡이 있고 그 사이로 검푸른 빛의 바다가 기암괴석들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 절벽에서 바라보는 일몰 광경은 주홍빛 바다와 하늘이 만들어 내는 형홀경을 연출한다.



활짝 핀 방파제가 해수욕장을 호위하듯 감싸고 있다. 대나루는 한적하고 아담한 해변으로 갯바위낚시로도 유명하다. 이 섬의 상징과도 같은 연평도 등대는 언덕 위 풍경과 어우러져 이국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등대 위에 올라 바다를 내려다보면 소연평도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조기의 섬으로 알려진 연평도는 이제 더 이상 조기가 잡히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 섬에 오면 조기를 떠올린다. 임경업 장군이 청나라를 치기 위해 명나라로 가던 중 연평도에 들러 가시나무로 조기를 잡은 것이 조기잡이의 유래가 됐다. 임장군을 기리는

빠빠용 절벽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해변이 가래칠기이다. 알록달록한 자갈과 굵은 모래알들이 발에 밟히는 천연해변이다. 군데군데 넓적한 바위들이 터를 닦고 있어 아무데나 걸터앉으면 그곳이 곧 그 쉼터가 된다.

구룬나루(구리동) 해변은 북녘 땅을 바라보며 물놀이를 할 수 있다. 손으로 한 움큼 잡아도 손바닥에 한 알갱이 남지 않고 쏟아져 내릴 만큼 모래가 곱고 해당화가



충민사와 우리나라 제일의 조가정으로 각광받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한 조가동상을 볼 수 있다.

섬 동북쪽 언덕 위에는 망향전망대가 있다. 북녘하늘로 지는 석양이 아름답기 그지없어 고향을 잃은 실향민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 어부의 길잡이가 되어 준 옛등대를 개조한 등대박물관도 볼거리다.

연평도 앞바다는 기묘한 바위작품의 전시장이다. 사람의 옆얼굴과 똑같이 생겼다는 얼굴바위, 겨울에 눈이 쌓이면 얼음과자가 있는 고깔모양이 되는 아이스크림바위, 팔배개를 하고 누운 농부처럼



보이는 와상바위, 열심히 걷는 거북이 모습을 닮은 거북바위 등 자연이 빚은 해상작품은 보는 이의 눈을 사로잡아 탄성을 절로 자아낸다.

연평도를 찾았다가 소연평도를 놓친다면 여행의 팁을 놓친 듯 안타까운 일이다. 연평도에서 남쪽으로 6.4km 내려가면 동생섬, 소연평도를 만날 수 있다. 이 섬에는 마치 병풍을 쳐놓은 것 같이 보인다 해서 이름 붙은 병풍바위가 있다. 바위 주변에는 티타늄 광산이 있었는데 그 조각들이 떨어져 해안가에 둥근 돌로 모이게 된, 일명 '오석해안'이 펼쳐져 있다. 썰물 때 드러나는 아름다운 검은 돌들은 가히 수석 수집가들도 탐낼 만한 명물이다. 맨발로 걸으면 발가락을 간질이는 느낌이 색다르고 햇볕에 뜨겁게 달궈진 자갈 위를 걷거나 누우면 지압효과와 물론 찜질효과도 볼 수 있다. 이밖에 주변에는 톱섬과 끼미해수욕장, 홍보부리 등 관광지가 곳곳에 숨어있다.



서해 5도의 모든 섬이 그렇듯이 연평도는 남녘보다 북한 땅에 더 가깝게 떠 있다. 웅진 반도가 바로 눈앞이다. 인천에서 145km 떨어진 연평도는 북한 부포리와는 10km 거리다. 날씨 좋은 날에는 북한의 해주 시멘트공장의 연기까지 보인다고 한다. 멀어서 그만큼 그리움의 정서가 더 깊게 배어 있는 섬이다.

산타페(Santa Fe), 예술의 특별한 중심지에서 '유네스코' 창조도시'로

산타페(Santa Fe),

예술의 특별한 중심지에서 '유네스코' 창조도시'로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서 미국도시 중 첫 번째로 가입된 도시가 산타페이다. 인구 12만 명의 규모의 산타페 카운티에 위치한 산타페 시는 85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이며 뉴멕시코 주의 주도이다. 산타페 시는 종종 문화의 메카라고 불리우는 예술의 특별한 중심지이다. 작은 도시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곳에는 비교적 매우 큰 규모의 예술가, 예술 산업, 예술 기관이 자리잡고 있다. 6000명의 예술가와 200개의 갤러리, 75개의 비영리 예술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풍부한 예술 활동을 통해, 미국 안에서 매우 특별한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방문하고 싶은 최고의 장소로 높은 순위에 올랐다.

사브리나 프렛(산타페시 예술위원회 위원장)
신성희(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원)



그림 1. 산타페시의 위치

산타페의 특별한 점은?

산타페는 아주 작은 도시이지만, 전문적인 작품들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박물관, 공연 예술 기관, 도시를 예술 중심지하게 만드는 모든 면들이 모여 이 작은 곳에 거대한 예술, 문화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경제학자 Martin Shubik은 산타페의 특별한 점, 성공요인을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정리하였다.

1. 산타페 주의 자연적인 아름다움. Marsden Hartley는 뉴멕시코 주를 "천연의 색이 존재하는 아메리카 대륙의 유일한 장소"라고 말했다.
2. 문화의 융합 : 원주민, 히스패닉, 미국계 백인 문화의 혼합은 모든 이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이다.
3. 문화적인 기후는 예술가와 장인들의 보편적인 지지를 확보하면서 세기가 바뀐 이후로 더욱 사랑 받게 되었다.
4. 초기, 저렴한 생활비와 비교적 제한적이지 않은 생활방식이 있었다.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색다른 특성을 기초로 산타페는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로 지명되었고, 도시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 왔다. 유네스코는 국제무대에서 다른 도시들과 협력할 열의가 있는 도시들을 찾고 있다. 이곳에서 각 도시들은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 그들의 문화적인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 홍보, 지식과 혁신성에 대한 공유는 네트워크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들이다. ("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가?").

- 국제적인 무대에서 당신의 도시 자산을 강조하고자 하는가?
-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창조적으로 만드는가?
- 전세계에서 문화 집단의 범주를 넘어 지식을 공유하는가?
- 지역성을 키우고 사업에서 지역의 문화를 적극 활용하는가?
- 노하우, 경험, 전문 기술의 교류를 통해 혁신성을 키우는가?
- 국내외 시장에서 다양한 문화적인 상품을 홍보하는가?



산타페 시는 이 요점들의 많은 부분을 성취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 세기 동안 특별한 문화의 정착지로 발전해 오면서 산타페 시는 세계적으로 그들의 문화적 자산을 선보이고 공유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산타페시가 2010년 6월까지



〈유네스코 창조도시 디자인 소모임 회의, 프랑스 리옹, 2009〉

전세계적으로 20개의 도시들과 계약을 맺은 것은 네트워크를 통한 이익이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네트워크에서 대표되는 상품들을 예술과 문화 수출로 이끌어 내고 있다. 전문적인 교류가 모든 도시에서 증가하고 더욱 보편화 되었다. 14개국 21개의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인 전문가 단체는 매우 규모가 크고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산타페 시는 이 계획을 도시의 문화적 자산을 강조하고 네트워크 도시 간의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삼고 있다.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가 21개의 국가로 늘어나면서 나는 산타페 시가 네트워크로부터 얻는 것이 정확히 예상했던 바일 것으로 기대한다. 창조성,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 관광에 관련한 최고의 경험들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욱 전세계로부터 더욱 많은 관광객이 산타페라는 독특한 도시를 경험하러 찾으리라 예상하고, 산타페의 장인들은 우리의 문화 유산과 예술 안에서 그들의 열정을 더욱 키워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창조성과 환경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실제로 도시, 주, 국가를 위한 주요 경제 발전의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서 미국도시 중 첫 번째로 가입된 도시가 산타페이다. 인구 12만 명의 규모의 산타페 카운티에 위치한 산타페 시는 85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이며 뉴멕시코 주의 주도이다.

창조도시 및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의 이해와 육성정책*

I. 유네스코의 <창조도시 네트워크>의 이해 및 등재요건

- 유네스코(UNESCO)의 <창조도시 네트워크>의 이해
 - 등재 분야: 문학, 영화, 음악,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예술, 음식 등 7개의 영역에 관한 세계수준의 경험이나 지식, 기술의 보유 도시.
- 등재요건
 - 단기간의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유네스코 창조도시로 지정되는 것이 아님
 - 문학, 디자인, 미식 등 도시의 창조적 역량을 꾸준히 끌어올려야 등재 가능
 - 이에 창조도시 지정을 원하는 관련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중장기적 전략수립 필요
- 등재도시의 1차 효과 및 혜택
 - "UNESCO CITY of **" 로 명명, 로고사용, 유네스코 웹사이트에 게재
 - 도시홍보효과, 국제적 협력체널구축, 관광명소화, 문화산업화 가능성 등

II.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동향

- 중앙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지난해 창조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
 - 국내의 도시들이 자신의 문화자원으로서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등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있음.
- 지자체
 - 지자체별로 '창조도시'를 일종의 슬로건처럼 경쟁적으로 사용중(창조도시 대전, 창조도시 철원, 디자인창조도시 김해, 문화창조도시 대구 등).
 - 그러나 지방정부의 창조도시 지정과 관련된 주된 관심은 경관계획, 도시디자인 등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있음
 - 이에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지방(도시)정부가 창조도시 네트워크가 도시개발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창의시정>과 <컬처노믹스(culture+economics)>
 - <창의문화도시>를 비전으로 내세운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컬처노믹스>는 도시의 문화적 환경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경제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월드디자인시티(WDC)'로 등재됨(2009)
- 이천시
 - '이천의 도자기전통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예'분야의 창조도시 등재 추진
 - 가입신청서 작성, 국제 컨퍼런스 참여.
- 강릉시
 - '단오제'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다시 민속예술 분야로 창조도시로 등재되는 것을 추진.
 - "강릉 단오 창조도시"추진체계, 마스터플랜 수립
- 광주시
 - 광주발전연구원에서는 정례화된 디자인 비엔날레 개최 등 디자인 분야가 장점이며 광산업과 연관된 큰 미디어 아트는 타 도시보다 우위에 있다고 진단.
- 김해시
 - '디자인 창조도시 김해'를 슬로건으로 함.
 - 디자인 창조도시 추진팀(T/F)을 구성, '2020디자인창조도시, 김해'마스터플랜을 수립
 - 2010년 '디자인'분야로 유네스코 창조도시 등재를 목표.

- 결국 도시의 물리적 개발형태로 마감하는 것이, 그 도시가 지닌 문화적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활용해 나가는 전략 구사 필요

* 2009년 인천발전연구원의 '이슈페이퍼'에 발표한 것을 요약, 정리함.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8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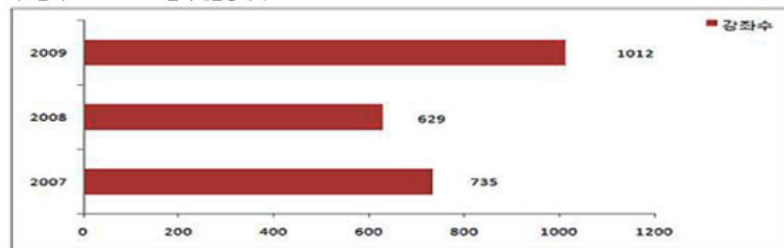
웹진 구독신청하기

2009 인천 문화예술교육 지표

연도별 현황

○ 2009년 인천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은 총 1,012건으로, 이는 2007년 735건, 2008년 629건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아진 수치임.

〈그림 1〉 2007~2009 문화예술강좌 수



자료 : 2009 인천문화예술연감, 인천문화재단

기관별 강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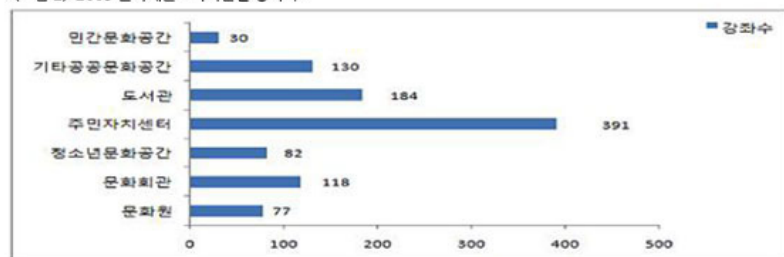
○ 교육기관별로 보면 크게 지방문화원, 문화회관, 청소년문화공간,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기타공공문화공간, 민간문화공간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기타문화공간으로는 복합문화공간, 박물관, 복지회관 등이 포함됨.

○ 문화예술교육 강좌가 가장 많은 기관은 주민자치센터(391건)로 38.6%의 비율을 차지함.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시민의 주거공간이 거리상으로 상당히 밀접한 곳에 위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 도서관 평생학습관 및 지역 도서관 강좌가 184건, 기타 공공문화공간이 130건을 기록함.

○ 민간문화공간의 경우 스페이스 빔, 시민교육연극센터, 새얼문화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강좌의 수는 총 30건(3%)에 불과하지만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데 의의가 있음.

〈그림 2〉 2009 문화예술교육기관별 강좌 수



자료 : 2009 인천문화예술연감, 인천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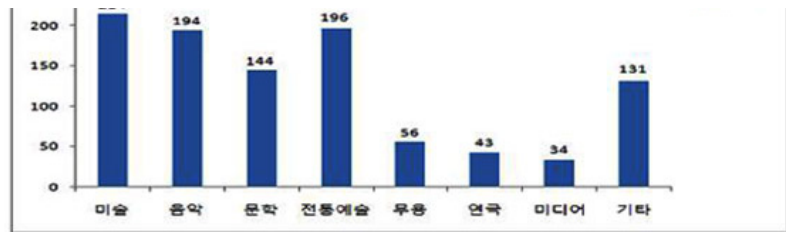
내용별 강좌 현황

○ 내용별 강좌 수를 살펴보면, 미술 관련 강좌가 214건(21.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전통예술 196건(19.4%), 음악 194건(19.2%), 문학 관련 강좌가 144건(14.2%)으로, 이상의 네 강좌가 전체의 70%로 나타났다.

○ 미술, 전통예술, 음악의 경우 기초실력을 다지는 강좌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학 관련 강좌는 주로 도서관에서 그 특성에 맞는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그림 3〉 2009 문화예술교육 내용별 강좌 수





자료 : 2009 인천문화예술연감, 인천문화재단

<참고문헌>

인천문화재단(2009), 인천문화예술연감

교육기관별로 보면 크게 지방문화원, 문화회관, 청소년문화공간,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기타공공문화공간, 민간문화공간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기타문화공간으로는 복합문화공간, 박물관, 복지회관 등이 포함됨.